

“수능 스트레스 훌훌 털자”

● 고3수험생을 위한 수련캠프

내면의 세계를 찾아 고즈넉한 산사로 떠나보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마음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선부도, 명상, 소리체험 등의 심신수련활동과 다도예절학습, 낙산사 견학 및 문화재 탐방활동, 진로·성격검사 등 다양한 인성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낼까 아니라 명상, 참선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잠재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수련캠프는 11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낙산사와 낙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02)723-6165

레오나르도 다카리오 주연의 영화보기, 평소 보고 싶던 책읽기, 친구들과 여행가기 등등. 한 여고생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있는 것들은 다름 아닌 ‘수능 후 해야 할 10가지’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수능이라는 혹독한 관문을 통과한 고3학생들. 비록 대학입학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잠시 학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동안 누렸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청소년수련관과 종교학교, 청소년수련관들이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

영어나 일어의 구사가능한 학생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주목하자. 한국스카우트가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한·일의 꿈과 미래 'Dream&Future of Korea-Japan'은 한·일 양국의 고3학생들과 대학생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문화 체험 행사이다.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국내에 있는 사찰, 고궁, 박물관 등지를 돌아다니며 우정도 쌓고 문화체험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02)6335-2000

● 기타 프로그램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심신수련캠프 18일부터 낙산사에서 경제관람 정립·메이크업 강좌 열어 한·일 고3 학생 한국문화 체험행사

● 성·미래직업, 경제학 등 다양한 강좌

신용불량자들이 증가한다던데... 10년 후에는 생명공학직종이 유망하다? 신문을 펼쳐니 온통 모르는 것을 부성이다. 농인고등학교와 해동고등학교 등 중등학교들과 청소년수련관들이 고3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좌들을 준비하고 있다. 농인고등학교는 건강관리 및 미래직업 안내 강좌를 마련 중이며, 해동고등학교는 인근지역 박물관 및 공연장 등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수련관(02-806-1377)은 학생들의 경제관념 정립을 위한 신용불량자 예방 프로그램과 메이크업 강좌를 마련하고, 수성구청소년수련관(063-741-1441)은 고3 문화축제 열 계획이다. 또 목동청소년수련관(02-2646-6815)은 학교단위의 신청을 받아 고3학생들을 위한 성교육강좌와 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11월 16일 코스트 플레이와 26일 락콘서트 수련관 내 뉴스테에서 진행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부산지부(051-513-4306)는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11월 16일 동의공업대학에서 개최한다. 또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051-868-0750)은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터넷예방교육, 열린노래방, 자원봉사기분교육 등 7개 일일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위촉을 리데이 지원센터(02-2667-0876)는 일하며 여행하는 체험활동가를 위한 '제1회 워킹홀리데이 박람회'를 11월 22일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밖에 일반학교들에서는 수험생들의 심신을 풀어주기 위한 가을수련회와 단체여행관광 등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김은경 기자 ipck@buddhania.com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전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全佛人세미나’ 선후배 연결 고려



◇창립 40주년을 맞은 지난 2001년,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과 재학생들이 기념행사 및 연례제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만드는 불교공동체, 부처님오신날이면 교내를 연 등 물결로 만드는 동아리. 아예 '우리는 부처님 가족'이라며 신명 연대감을 자랑하는 불교학생회. 지난 60년 창립이후, 광주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의 모토이다.

전남대 불교학생회의 자부심은 단연, 선우씨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불인 합동 세미나'.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80년부터 재학생과 동문들이 불교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한 주제를 갖

천운스님·교수 등 30여명으로 법사단 문화답사·체육대회로 동문 참여 유도

고, 열린 토론의 장을 벌여진다. 또 선배들의 구도 열정을 듣는 자리가 마련돼 재학생들의 신심을 다지는 기회도 갖는다.

전남대 불교학생회 역사는 2001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기수

별 동기모임, 광주지역 재향 모임, 재경동문모임 등이 전국 단위 동문회로 결집되고, 총 700여 명의 동문 주소록 등이 작성되는 계기가 됐다. 또 연말에 있는 졸업생 환송회를 '가족의 밤'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동문회를 재조직하고 회장단을 구성해 2002년에는 광주 무각사에서 첫 동문법회를 봉행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내년부터 월별 동문법회를 꾸준히 열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문회는 이와 관련,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전남대 이종표 교수 등 총 30여 명을 법사로 위촉, 법사단을 결성한다. 또 법회도 프로그램도 문화답사, 보성차밭 체험, 체육대회 등 다양하게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회비 자동납부

를 추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재학생 장학금 및 행사 지원, 동문회사업 추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조기정 회장은 "앞으로 졸업생 취업 알선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재계, 학계, 공직, 법조계 등에서 활동 중인 동문 인맥을 심본 활용해 재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신생활동 여건을 마련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자랑스런 동문들

윤청하 前 중무실장·이종표 교수 등 43년 동안 불자 동문 700여명 배출

지난 60년 창립한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는 43년간 배출한 동문만 7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동문들은 공직·학계·불교계·재계·언론계·출판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직에는 박찬주(65학번·중앙정부청사 법제처), 윤청하(66학번·문화관광부 전 중무실장·사진), 김상준(74학번·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과) 등이, 학계에는 최인선(70학번·전남대 의대 교수), 임정식(71학번·원광대 의대 비뇨기학과 교수), 박병민(72학번·원광대 생리학과 교수), 배준상(72학번·전남대 해부학과 교수), 이종표(73학번·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 최옥자(75학번·순천대 가정교육학과 교수) 등이 있다. 또 의료계에는 이순규(59학번·이신경정신과의원), 반승일(63학번·서민정형외과의원), 서치정(70학번·영광종합병원장) 등이, 불교계에는 박남철(79학번·광주농인불교문화원장), 강동훈(81학번·불교방송 보도국) 등이 있다.



◇윤청하 동문



◇이종표 동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고등역술 육임(六壬) 수강생 모집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제 7기 ● 한국육임학회 홈페이지 : www.taotemple.net

- 六壬학당 「효사숙」 제 7기 육임학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 학습기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씩 3개월 13주 52시간이며 음양오행의 기초를 모르는 분들은 본 강의 전 2시간에 걸쳐 사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六壬은 사람의 일(人事)을 밝히는 데는 때를 학문이 없다고 하여 옛부터 오술지중 제왕(五術之中帝王)이요, 신시(神示)라고 했습니다.
- 오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했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기 일췌였습니다.
- 방문(전화)은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지?」「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등 20여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주게 되는 최고 제일의 고등한 오행술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긴 운로(運路)를 따지는데는 사주(四柱)만한 학문이 없습니다만 당장의 절박한 길흉성부(吉凶成否)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판단하는데는 六壬을 능가할 학문이 없습니다. 사주는 농경사회의 정서에 부합되는 구조이고, 六壬은 치열한 이 시대의 다양한 의심사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활인천역의 공부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적 가치가 중요하합니다.
- 문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먼 훗날의 일을 물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면사가 될 지 안될지 할지 말지 등의 길흉을 물러 온다는 데 있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사주공부 10년을 해도 갈급(渴急)한 목전사(目前事)를 딱 딱 부러뜨릴 수 있기가 힘듭니다. 사주명리학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임에서의 이런 것들은 기본차원이어서 쉽고 분명하며 정확합니다.
- 또한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누가 무엇 때문에 올것이며 그 일이 어떻게 전개 될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감지하여 미리 밝혀 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 나아가, 꼬이는 일과 질병에 관련하여 지금 어떤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지금 무슨 부정밀기가 들었는지,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털이 났는지 등을 정확히 먼저 지적하고 그 해소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 은 오랜 六壬史를 통해 검증되어 있는 六壬만의 영험입니다.六壬에서는 이를 「형이상법」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六壬을 공부하면 기허(五行)를 완성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한문(漢文)을 몰라도 되고, 오행의 기초를 몰라도 오히려 六壬의 정점을 크게 습득·활용하게 됩니다.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육임학당 「효사숙」강주 曉史선생께서는 「육임태정비법」, 「육임태정비법수정보완본」, 「육임운명 판단법」, 「육임비요형이상법」, 「육임비디오강의」, 「육임태정비법CD」, 「육임신수비결」, 「육임태정비법 휴대용」, 「태양·태음·사신선 판본비법」, 「육임태정비법 日語版」등 12권의 육임서를 저술하여 그동안 비선(秘線)으로만 전달, 우리 활인천역자들의 실력을 크게 고양시킨 분으로서 3년전부터 육임강의를 시작하여 전국에 육임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 이 시대는 六壬이 절실한 시대로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직설(直告)하는 六壬家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여러분의 인생 대 전기를 위해 여러분을 「효사숙」제 7기로 초대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여 알려 드리오니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육임 「지두법」과 「길흉속지법」 몇가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간판을 달게 해 주시고 사칭하여 300만원씩 받고 있는 행위
2.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육임을 신통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수백만원에서 부터 1천여만원을 요구하는 행위
3. 육임서적 구입시 명단을 갖고 신상 정보를 사전 파악한 후 찾아가 잘 맞추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출처불명의 책자를 파는 행위
4. 육임 단식법 몇가지를 일리 선생으로 자처하며 사름을 모으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효사숙」외 「부선숙」「대구숙」「광주숙」「전주숙」「진주숙」「인천숙」「강남숙」(비구니 스님들께서만 수강) 외에는 제가 강의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육임태정비법을 3년전 초창기 및 모르고 「책 설명 강의」를 중 했었는데 제로인해 이처럼 큰 해악들이 있게 되버려 전국에 계시는 현인 기사 이인 각위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 송구합니다. 늦게나마 사과 드리오니 해량 하시기 바랍니다. 효사 배상.



- 강 사: 鼓卜子 曉史
- 강의시간: 11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기초 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 등록비: 10월 31까지 방문, 입금 하신 분
- 정 원: 30분
- 등 록 비: 일백 오십만원
- 교 재: 효사육임강의록 上(학습서) · 下(활용서) 값 410,000, 무료증정(분회 학습교재)
- 장 소: 수유리 강북구청 원복동 일일건물 4층 「육임학당 효사숙」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 특 전: 수료후 분회 회원으로서 「회원실기 강의」를 지속적으로 무료 수강하게 됩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外 曉史선생 전국 육임 直講 일정 ●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996-3335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 024-8680 ■ 대구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분회 회원 실기 지도강의」가 본 강의 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993-8680 / 02-998-8683 담당: 정 주연 사무국장 ● 입금계좌: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